

멕시코 자연 재료로 만든 지속 가능한 아트 퍼니처

페르난도 라포세

Fernando Laposse

멕시코 출신 아티스트 페르난도 라포세는 옥수수, 아보카도, 아가베 같은 멕시코 토착 식재료를 현대적 미학으로 재해석해왔다. 환경 파괴와 생물 다양성 위기, 지역 공동체 붕괴를 주제로 한 10여 년의 연구가 그 작업의 바탕이다. 우리는 그에게 지속 가능한 아트 퍼니처의 현재를 물었다.

서울의 더페이지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는 개인전 <자연의 첫 번째 금은 초록(The First Gold is Green)>은 마치 누군가의 집에 초대받은 듯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맞습니다. 이번 전시에서 그런 편안함을 공간 전반에 담아내고자 했습니다. 테이블, 램프, 캐비닛을 배치해 관람객이 거실에 머무는 듯한 경험을 하게 하고 싶었죠. 특히 멕시코 원주민 공예가 지닌 '단순함과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아시아 철학과 연결하고 싶었습니다. 최근 루파(수세미) 램프 작업을 다시 시작하면서도 그러한 미학이 아시아 전통과 깊이 공명한다고 느꼈어요. 제 작업은 재료의 본질을 드러내되 완벽을 추구하지 않는 데서 출발합니다. 일본의 쇼지 스크린이나 구미코 기법처럼 반복

되는 사각형, 단순한 직선, 기하학 구조에서 영감을 받았지만 단순히 복제하는 대신 고유한 기술로 재해석하죠. 또한 이번 전시작의 상당수는 음식 재료를 활용해 제작했는데, 멕시코의 전통 제례와 축제에서 음식은 영적 상징성을 지닙니다. 이러한 맥락은 한국 관객에게도 깊은 울림을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전시 제목은 미국의 대표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의 시 'Nothing Gold Can Stay'에서 영감을 얻었다고요? 'The First Gold is Green'이라는 전시명에 담긴 의미를 좀 더 자세히 들려주세요.

아주 짧지만 강렬한 이 시는 자연의 첫 잎이 지닌 무상함과 그 소중함을 이야기합니다. 계절과 시간의 흐름, 자연의 주기를 에덴의 신화와 연결해 탐욕으로 인해 정원이 파괴되는 이야기를 이어가죠. 제 작업이 수년간 탐구해온 주제와 맞닿아 있어 흥미로웠습니다. 바로 무역과 상업, 그리고 자연 자원의 상품화가 공동체와 산림을 어떻게 압박하고 파괴하는지에 관한 문제죠. 특정 자원이 하루아침에 상업적 붐을 타며 가치가 폭등하고, 결국 사라진 뒤 남는 것은 파괴뿐이라는 현실과도 연결됩니다. 전시 제목은 이 시를 참조하면서도 종교적 맥락보다는 지금 우리가 직면한 현실, 즉 자원의 상업화와 그로 인한 자연 파괴에 초점을 맞췄죠.

옥수수, 아보카도, 아가베 같은 재료를 작품 재료로 사용하게 된 계기를 말씀해주세요. 처음 그 재료로 작업했을 때를 기억하나요?

약 10년 전 멕시코 이달고주 토투틀라 및 툴라 인근 옥수수 재배 지역에



이번 개인전을 위해 서울을 찾은 페르난도 라포세. 아가베잎에서 얻은 천연섬유를 이용해 털이 난 듯한 조각 작품이자 램프 'Patachon'을 만들었다. 멕시코 괴물 전설에서 영감을 받은 작품이다. 'Patachon', agave fibers, brass, 3D printing filament, plywood, steel structure, 178×220×110cm, 2024.

서 아트 레지던시에 참여했어요. 유전자 변형 옥수수의 수입을 막기 위해 활동하는 현지 단체와 협업하게 됐지요. 함께 토종 옥수수를 되살리고 장려할 방법을 찾으려서, 토착 농부들이 전통을 이어가며 옥수수를 지속적으로 재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재료 개발까지 연구가 확장되고요. 그 결과물이 바로 '토토목슬 Totomoxle'입니다. 저는 예전부터 스스로를 예술가라기보다 디자이너에 가깝다고 생각해왔기에 이러한 연구 중심의 과정에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특히 문화적·역사적 맥락을 담은 작업일수록 더욱 큰 의미가 있다고 느꼈어요.

스스로의 작업을 리서치 중심이라고 했는데, 그 과정이 실제 제작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토토목슬 프로젝트의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도 궁금합니다. 또 작품을 완성해가는 과정에서 가장 흥미롭거나 도전적이었던 순간은 언제일까요?

사실 제 작업은 제작보다 리서치에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토토목슬'만 해도 멕시코 토종 옥수수의 씨앗을 되살리고 재배 체계를 복원하는 데만 3~4년이 필요했어요. 단순히 상업적 목표가 아니라, 사라져가는 생물 다양성과 그 안에 담긴 삶의 방식을 존중하려면 먼저 현장을 조사하고, 공동체와 관계를 구축해야 했기 때문이죠. 모두가 같은 것을 소비하는 세상에서 다른 방식의 삶과 재배 전통을 지켜내는 일이 제 작업이 지향하는 가장 큰 가치입니다. 그래서 제 작품은 결과물 이전에 공동체와 연결되고, 전통을 보존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1

구체적으로는 토토목술은 앞서 말했듯 푸에블라 지역 농가와 협력해 토종 옥수수 종자를 복원하고 재배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품종을 다시 뿌리고 수확하는 데 두 해가 걸렸고, 그 후 옥수수 껍질을 건조·다림질해 평평하게 펴고, 이를 종이나 섬유 지지체에 부착해 모자이크처럼 조합하는 마케트리(wood inlay) 기법을 완성했죠. 이런 기술적 과정이 안정되기까지 실험과 실패가 반복됐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실제 제작 과정 자체를 크게 즐기지는 않습니다.(웃음) 대신 기술적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나갈 때, 그리고 재료가 어느 순간 스스로 어떤 형태를 띠어야 할지를 보여줄 때 가장 큰 흥미를 느낍니다. 첫 수확에서 여러 색과 질감의 옥수수 껍질이 되살아났을 때가 특히 도전적이면서도 짜릿하던 순간이었어요. 그때 비로소 이 재료가 스스로 작품 형태를 이끌어갈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죠.

가구의 독특한 패턴이 인상적입니다. 이런 디자인은 어디서 영감을 받았나요?

이 패턴을 완성하기까지도 상당히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예를 들어 토토목술 작업은 인터넷도 없는 시골의 수도원 같은 환경에서 지내며, 매일 책을 읽고 연구하는 과정을 통해 탄생했죠. 영감의 출발점은 멕시코에 서식하는 다이아몬드백방울뱀의 등 무늬였습니다. 멕시코 전설에는 뱀의 신 케찰코아틀이 인간에게 옥수수를 선물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방울뱀의 비늘은 마름모꼴이 반복되는 무늬를 이루는데, 이를 옥수수잎으로 재해석해 패턴을 만들었습니다.

색감 또한 인위적으로 조정하지 않았습니다. 옥수수잎은 계절에 따라 흰색·주황색·보라색으로 자라는데, 저는 단지 색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 있게 배열했을 뿐입니다. 그 자연스러운 색의 균형이 연속



2



3

적인 흐름을 보는 듯한 착시를 만들어냅니다. 결국 컬렉터가 구매하는 것은 단순한 오브제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사람의 시간, 즉 노동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AI가 확산되는 시대일수록 인간의 시간이 점점 더 귀해질 것이라 믿습니다.

최근에는 아보카도 껍질을 작업에 활용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계기로 시작했으며, 제작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아보카도처럼 젊은 세대에게 인기가 많고 언제 어디서나 소비되는 식품 뒤에는 자연적 비용뿐 아니라, 인적 비용도 따른다는 점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이를 위해 멕시코시티 전통 시장에서 과자물리를 판매하는 가족들과 협업했죠. 그들은 과육만 판매하고 껍질은 버리는데, 저희가 주 2회 그 껍질을 수거합니다. 이후 껍질을 압력과 열로 건조하는데, 건조 속도가 관건입니다. 너무 빨리 말리면 갈라지고, 늦게 말리면 썩기 때문에 수많은 실험을 거쳤습니다. 그렇게 완성된 껍질은 종이로 보강한 뒤 원하는 형태로 잘라 목공과 가구 제작으로 이어갑니다. 우리 스튜디오에는 직원 여덟 명이 있는데, 아보카도 껍질 작업에는 보통 두 명이 몇 달 동안 전념해야 합니다.

당신의 작품은 가구 디자인과 예술 작품의 경계에 놓여 있습니다. ‘아트 퍼니처’라는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나요?

단순히 앉거나 수납하는 실용적 기능을 넘어 작품 자체가 시대의 문제 의식과 이야기를 품는 것.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물건을 넘어 현재를 기록하는 타임캡슐로서, 수십 년 뒤에도 오늘의 현실을 전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되죠. 예를 들어 제가 제작한 아보카도 캐비닛을 본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21세기 초반에는 아보카도를 전 세계로 운송하던 시대가 있었구나” 하고 그 소비문화를 떠올릴 것입니다.



4

즉, 아트 퍼니처는 단순히 ‘예쁜 가구’가 아니라, 현재의 문화적 순간을 보존하고 전달하는 도구입니다. 이 개념은 유럽에서 먼저 제도화되면서 본격적인 시장을 형성했습니다. 바우하우스나 아트&크래프트 운동은 기계화·산업화가 인간 삶에 미친 영향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며 현대 디자인과 예술의 경계를 허문 흐름이죠.

당신의 집도 궁금합니다. 멕시코에서 집을 짓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짓는 집은 차분하고 고요한 분위기를 지니고 있습니다. 마치 이번 전시장처럼요. 몇 해 전 런던의 집과 스튜디오에서 화재가 나 모든 것을 잃은 경험이 제 삶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계기가 됐습니다. 불길 속에서 살아남은 것은 금속이나 천연 재료뿐이었죠. 그때부터 집과 옷, 인테리어에 이르기까지 천연 재료와 천연 염료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이나 합성수지는 전혀 쓰지 않게 됐지요.

앞으로의 계획이나 목표를 들려주세요.

우선 아보카도 생산을 어떻게 늘릴지 연구 중입니다. 새로운 재료를 추가할 계획은 당분간 없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세 가지 재료만 다뤄왔기 때문입니다. 또 교도소 프로그램과 협력해 출소 예정인 수감자들이 아보카도 폐기물을 활용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젝트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료와 사람을 함께 살리는 순환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과정이죠.

환경과 기후 위기를 이야기할 때 단순히 플라스틱 문제로 한정해서는 안 됩니다. 불평등, 빈곤, 폭력, 자원 흐름의 불균형이 근본 원인입니다. 생물 다양성 상실, 토착민 권리, 토지 침식 같은 다루기 어려운 주제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으로도 아트 퍼니처를 계속 선보이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4 더페이지갤러리 전시
전경. 마치 집과 같은 분위기를 연출했다. 토토목술 캐비닛과 테이블이 돋보인다.

5 옥수수 껍질을
옥수수대에서 벗겨낸 뒤 다림질해 평평하게 만들고, 반침용 직물에 붙인다. 이후 이를 레이저로 절단해 서로 맞물리는 조각으로 만들어 마케트리(목재 인레이 기법)로 조합해 완성한 토토목술.



5